

보도자료

2011년 9월 2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이상훈 팀장(☎750-2750)
네트워크정보보호팀 김신겸 사무관(☎750-2750) sgkim@kcc.go.kr

방통위, '스마트폰 자가 보안점검 앱' 개발·보급

- 이용자 스스로 자기 스마트폰 보안진단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서종렬)은 26일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보안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'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(Self Security Checker)'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.

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1,500만을 넘는 등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, 해외에서는 모바일 악성코드 유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.

'스마트폰 보안 자가점검 앱'의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의 '비밀번호(패턴)설정', 백신 설치, 사용프로그램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점검하여 보안취약 부분에 대하여 백신설치,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삭제 등 이용자가 쉽고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.

방통위는 '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'을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안드로이드 탑재 폰을 대상으로 우선 개발하였고, 현재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모바일앱 마켓 및 구글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.

아울러, 방통위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각 스마트폰 별로 이용 가능한 백신의 종류, 설치 및 사용방법을 게재한 ‘스마트폰 백신 이용안내서’도 제작을 완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홈페이지(<http://m.kisa.or.kr>)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.

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‘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’ 및 ‘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’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잘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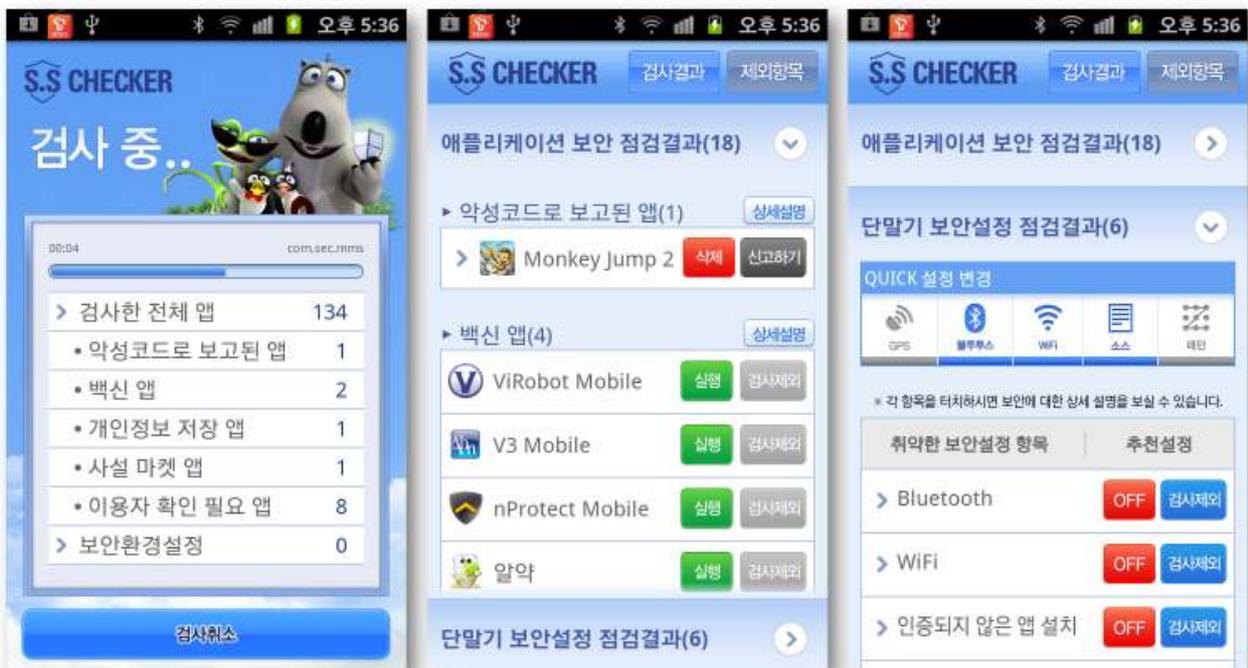
- 붙임 : 1. ‘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’ 주요 구성 내용
2. ‘스마트폰 백신 이용안내서’ 구성 및 사용 화면

[붙임1]

‘스마트폰 자가 점검 앱’ 주요 구성 내용



<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 초기화면>



<스마트폰 자가 보안점검 결과화면>

[붙임2]

‘스마트폰 백신 이용안내서’ 구성 및 사용화면



<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및 스마트폰 백신 검색 화면>



<‘설치하기’버튼을 통한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실행 화면>